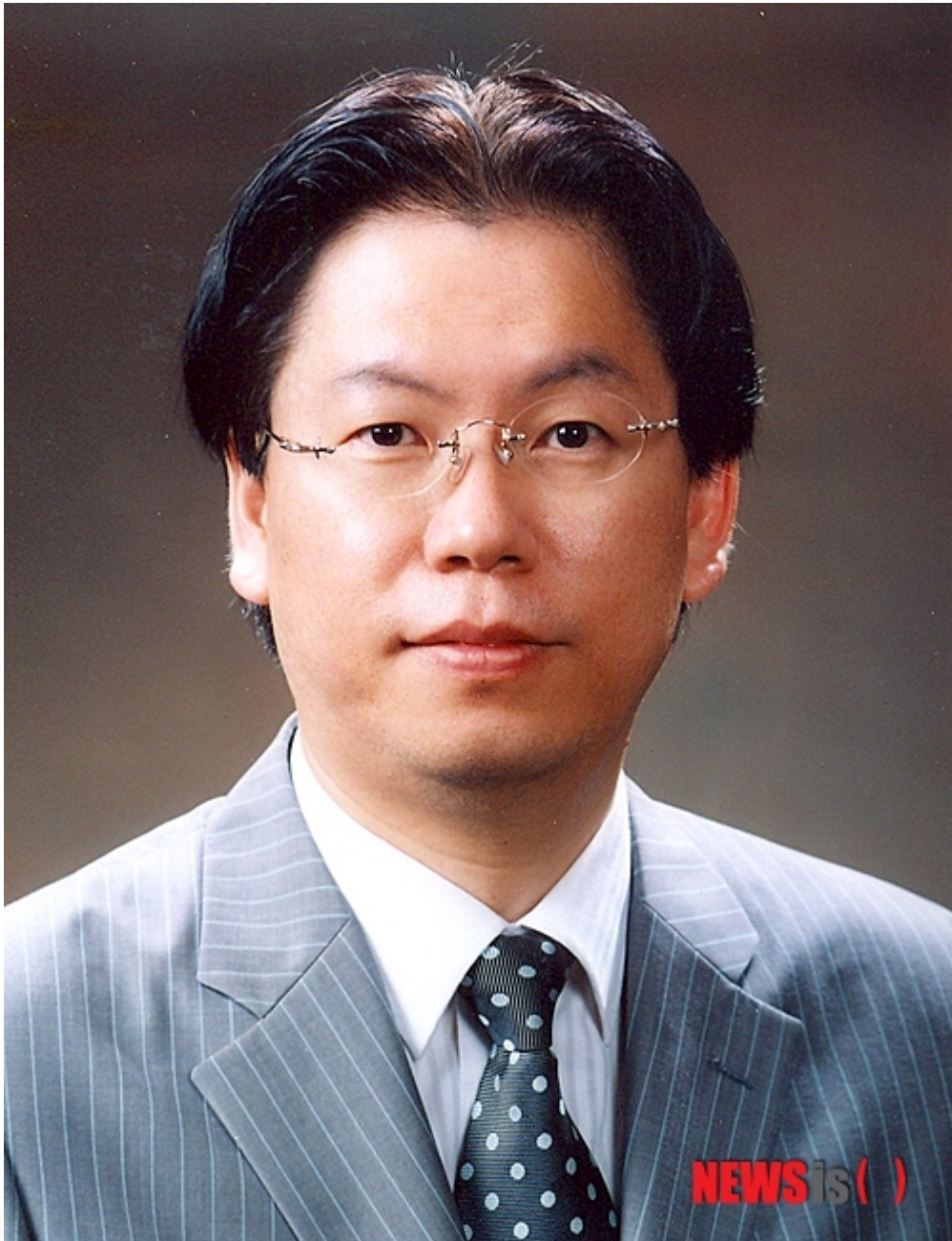


포스텍·신풍제약, 신개념 유착방지제 개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스텍(포항공과대·총장 김용민)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이 신풍제약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신개념 유착 방지제 ‘메디커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자궁내막근종 등 자궁경을 통한 수술 환자 213명에 대한 임상시험과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환자 91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착방지제(메디커튼)의 안전성 및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을 받고 유럽연합(EU) CE(Comunaute Europeenne) 인증에 성공해 유럽 의료시장 진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한세광 교수는 신풍제약과 공동으로 히알루론산 유도체를 이용한 성형수술용 필러, 관절윤활제, 간질환 맞춤형 단백질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연구도 수행 중이다.


세계적 수준의 나노의약(nanomedicine) 개발을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전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한 교수는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다양한 생체재료를 이용한 나노의약 개발과 관련 최근 3년 동안 생체재료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 17편을 포함해 총 33편의 논문을 SCI 저널에 게재했다.

한세광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은 포스텍-신풍제약의 산학 연구를 통한 첫 사업화 사례”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나노의약 제품을 상업화해 바이오/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